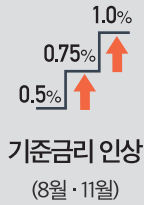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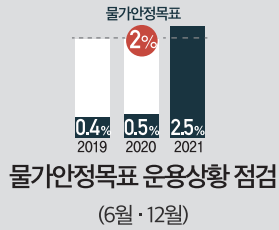

II

업무 현황

1. 중기전략	27
2. 통화신용정책	28
3. 금융안정	36
4. 발권	45
5. 지급결제	50
6. 외환 및 국제협력	56
7. 조사통계	66
8. 국고 및 증권	74
9. 대외 커뮤니케이션	79

2021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수행



금융안정 책무 수행 및 장기 정책 이슈 대비



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

금융안정점검회의 개최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외환시장 안정

미 연준과 FIMA Repo Facility 이용 합의
한·미 통화스왑(600억 달러)
연장(6월) 및 종료(12월)



비상대응체제 가동

미 연준 통화정책정상화 추진,
중국 헝다그룹 채무불이행 사태 등에
대비하여 통화금융대책반회의 등 개최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수립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진행,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법적 이슈 조사 등

조사연구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및 위기 이후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



대국민 비대면 소통 활성화

소셜미디어 활성화
온라인 화폐 박물관 개설



BIS 이사국 활동 등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 적극 참여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주관 등

가. 거시건전성 분석·평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 발생시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조기경보(early warning)하는 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금융경제 여건 변화가 국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가계 및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공동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과 복원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하여 한국은행 차원의 대응전략⁶⁷⁾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경기 회복세, 양호한 대외 건전성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다. 다만 부동산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잠재 취약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⁶⁹⁾는 6월 최저치(0)를 기록하는 등 주의단계 임계치(8.0)를 하회하고 있는 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⁷⁰⁾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66) 2021년 중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6월호, 2021년 12월호.

67)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1>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방향 수립」에서 확인할 수 있다.

68)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상황을 매분기 점검하는 금융안정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회의의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당일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6월 및 12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당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69) 기존 금융안정지수를 실제 평가내용과 같도록 명칭을 변경하였다. 금융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문(은행, 금융시장, 대외, 실물경제, 가계, 기업)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로, 금융상황을 정상, 주의, 위기 단계로 구분한다. 주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위기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잡음-신호 비율(noise-to-signal ratio)'방식에 따라 각각 8과 22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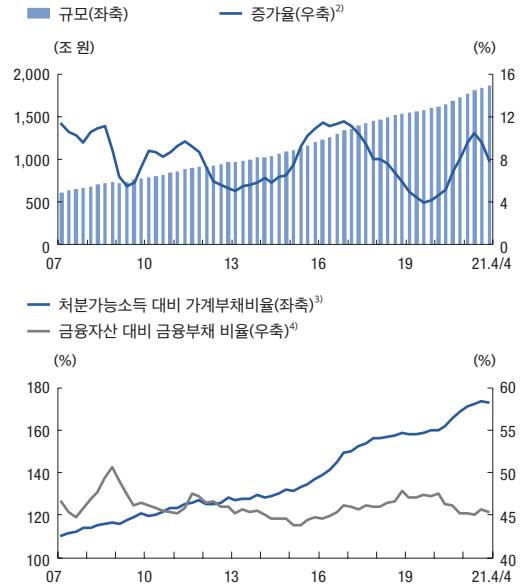
70) 자산가격, 신용축적 등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과 관련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Min-Max 방식을 이용하여 역사적 최고치를 100, 최저치를 0으로 설정)로,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측정을 통해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안정상황을 판단하는 지수이다. 동 지수의 상승(하락)은 금융불균형 심화(완화),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강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심화(완화)되어,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경제에 초래될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확대(축소)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림 II - 5. 금융불안지수(FSI) 및 금융취약성지수(FVI)



자료: 한국은행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 신용/명목GDP 비율은 2021년 말 220.8%(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 7.1% 포인트 상승하였다. 명목 GDP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나 가계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민간신용이 더욱 큰 폭 늘어난 데 기인한다. 가계신용은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크게 확대되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은 증대되었다. 다만 가계대출 연체율⁷⁾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다.

그림 II - 6. 가계신용¹⁾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분기 자료는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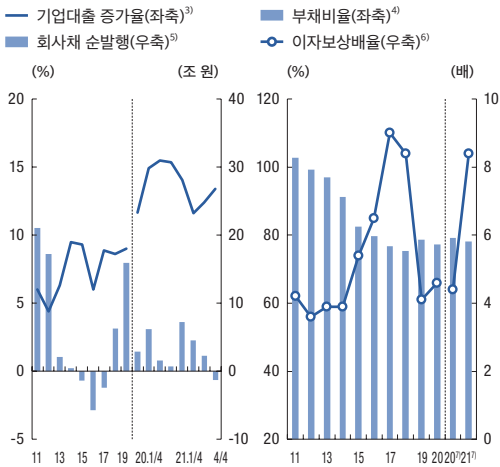
4) 자금순환통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기업신용은 코로나19 재확산, 원자재가격 상승, 설비 및 부동산 관련 투자 확대,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조치 연장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기업부문의 재무건전성이 실적회복 등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금융기관(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0년 4/4분기말 0.65%에서 2021년 4/4분기말 0.52%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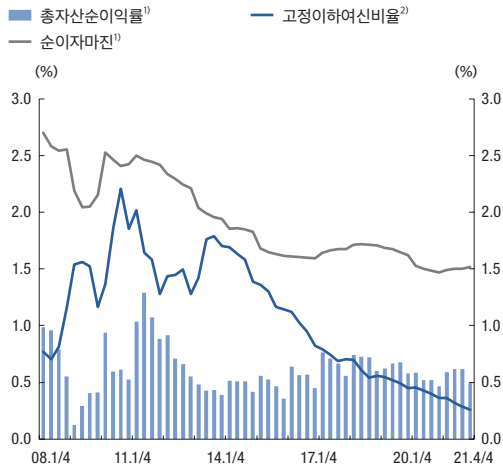
그림 II - 7. 기업신용¹⁾ 및 재무건전성²⁾



주: 1) 예금은행(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기업(금융 및 보험업 제외)대출 기준
 2)사업보고서 공시 상장기업, 일부 비상장기업 등 총 2,218개기업 대상
 3)전년동기대비 기준
 4)부채/자기자본, 기말기준
 5) 분기 중 기준(20년 이후)
 6) 영업이익/이자비용
 7) 각 년도 3/4분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KIS-Value

일반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자산건전성이 금융지원·완화조치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였으며, 수익성도 이자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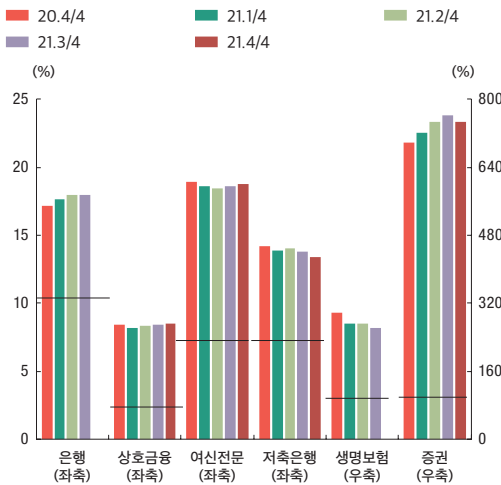
그림 II - 8.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2)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은행의 자본비율이 상승하였고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대응 비율도 모든 은행에서 규제기준을 상회하였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개선되고 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을 충족하였다. 향후에도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양호한 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종 금융지원 조치들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소득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딘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과 복원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명목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확대로 높아졌으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외채의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였다.

그림 II - 9. 금융기관¹⁾ 자본비율²⁾³⁾



주: 1) 은행은 일반은행 기준

2) 은행 총자본비율(감독기준 10.5%, D-SIB은 11.5%),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2%, 새마을금고는 4%, 농협은 5%), 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7%, 신용카드회사는 8%),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7%,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은 8%),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100%), 증권회사 순자본비율(100%)

3) 점선은 감독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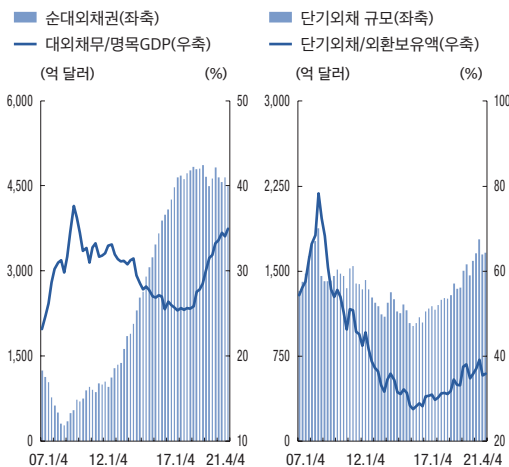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지속, 금융지원·완화 조치 종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완화적 금융여건의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현재화될 위험과 함께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자산가격의 조정, 부채 디레버리징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증대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공동검사 수행 및 국내외 금융안정 현안 논의 참여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누적된 잠재위험 요인과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을 조기포착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하였던 검사 횟수를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장기간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중소형 은행을 대상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은행의 대출 취급 및 건전성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가계 및 기업대출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잠재리스크 요인,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실시된 대규모 금융지원의 효과와 관련 리스크도 점검하였다. 특히 금융의 디지털 확대에 따른 은행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2017년 출범 이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자산규모가 크게 확대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리스크 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II - 10.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¹⁾ 및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¹⁾



주: 1) 분기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표 II - 7.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회)

	2017	2018	2019	2020	2021
부문검사	4	3	4	-	2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	2	2	2	2	4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효과적인 상시감시 활동을 위해 기업 대출에 대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 데이터 미시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전분석 확대를 통해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검사결과의 금융기관 앞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공동검사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각종 국내외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금융안정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 공조를 지속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국내 관계기관 간 「거시경제 금융회의⁷²⁾」,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등에 참여하여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회원기관으로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바젤 III⁷³⁾ 이행평가를 위해 신설된 규제개혁평가작업반(Task Force on Evaluation)에 참여하였다. 또한 중앙은

행 및 감독기구 간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논의체인 녹색금융네트워크(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⁷⁴⁾ 총회 및 실무그룹 활동을 강화하고, 기후변화가 거시경제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반(Macrofinancial workstream)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하였다. 아울러 은행감독 실무그룹 회원기관으로서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 회원국 은행감독국장 회의 및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Supervisory College)⁷⁵⁾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감독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관련 정보 수집에 적극 노력하였다.

나. 외환시장 안정조치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 추진

한국은행은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취약성 완화에 초점을 두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월 20일 발표하였다. 한국은행 등은 동 방안에 따라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정비,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⁷⁶⁾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환건전성협의회⁷⁷⁾에서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계기

72)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2012년 7월에 신설되어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다.

7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BCBS가 2010년 발표한 새로운 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 자본규제 기준을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조정하여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차입투자규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동 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 마련된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국내 은행에는 2013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74)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 관행 공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설립된 자발적 논의체로서 한국은행은 2019년 11월 가입하였으며 2020년 12월 말 현재 83개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가 참여 중이다.

75)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본점 소재국과 진출국 금융당국자들이 참가하는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이다.

76) 한국은행은 비금융기관(연기금·공제회 등)의 해외투자 자료를 확충하고 모니터링을 체계화하는 한편,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외환분석체계개선반)을 신설하였다(2021년 7월).

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미 연준과 FIMA Repo Facility 이용 합의

한국은행은 미 연준이 도입한 FIMA Repo Facility⁷⁸⁾를 필요 시 이용하기로 12월 21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FIMA Repo Facility를 통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적격증권을 활용하여 미 연준으로부터 6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연 0.25%의 금리로 미 달러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향후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미 달러화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등 필요 시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스위스와 통화스왑계약 연장, 터키와 통화스왑계약 신규체결 및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종료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3월에는 스위스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연장하면서 스왑 목적에 기존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에 더해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추가하였고, 계약 기간을 기

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8월에는 터키중앙은행과 양국간 교역 확대 및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협력 목적의 자국통화 스왑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였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20년 3월 미 연준과 체결한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계약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2021년 12월 말에 종료하였다.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한국은행은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에도 노력하였다. ASEAN+3 국가간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⁷⁹⁾의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CMIM의 단기유동성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협정문⁸⁰⁾이 3월 31일 발효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ASEAN+3 금융협력회의 공동의장국⁸¹⁾ 중앙은행으로서 협정문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논의를 주도하였다. 또한 CMIM 실행력(operational readiness) 제고를 위한 모의훈련⁸²⁾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다.

77)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간 협의체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2021년 7월 6일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다.

78) FIMA(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Repo Facility는 미 연준이 외국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화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2020년 3월 31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가 2021년 7월 27일 이를 상설화하였다.

79) ASEAN+3 국가는 CMI의 양자간 스왑계약(bilateral swap agreement)의 미비점을 극복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 CMI를 다자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를 출범시킴으로써 역내 금융지원체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80) 주요 개정 내용은 IMF 프로그램 도입(또는 예정) 없이도 지원 가능한 IMF비연계비율 상향(30%→40%), 미달러화 대신 역내 통화로도 지원 가능한 제도 도입 등이다.

81) 동 회의는 매년 ASEAN 10개국 중 1개국과 한·중·일 3개국 중 1개국이 순차적으로 공동의장국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2021년에는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공동의장국을 수입하였다.

표 II - 8.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구분	체결 국가	규모 (미 달러 ¹⁾ 기준)	최근 체결 연장일	만 기
자국 통화 스왑	미국	600억 달러	2021년 6월	2021년 12월
	캐나다	사전한도 없음	2017년 11월	없음
	스위스	100억 프랑/11.2조 원 (약 106억 달러 상당)	2021년 3월	2026년 3월
	중국	4,000억 위안/70조 원 (약 590억 달러 상당)	2020년 10월	2025년 10월
	인도네시아	115조 루피아/10.7조 원 (약 100억 달러 상당)	2020년 3월	2023년 3월
	호주	120억 호주달러/9.6조 원 (약 81억 달러 상당)	2020년 2월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150억 링깃/5조 원 (약 47억 달러 상당)	2020년 2월	2023년 2월
	UAE	200억 디르함/6.1조 원 (약 54억 달러 상당)	2019년 4월	2022년 4월
	터키	175억 리라/2.3조 원 (약 20억 달러 상당)	2021년 8월	2024년 8월
미달 러화 스왑	CMIM	384억 달러 ²⁾	2014년 7월	—

주: 1) 최초 또는 규모 확대 체결 시 환율 기준

2) CMIM 총 재원은 2,40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수혜 및 분담 규모는 각각 384억 달러(16%)

자료: 한국은행

장의 안정 노력을 강화하였다.

미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 등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중국 헝다그룹 채무불이행 사태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시기에는 「통화금융대책반⁸³⁾」 회의 등을 개최하여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움직임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라.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 가동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살피고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등 금융시

82) CMIM 자금인출 모의훈련은 2021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고, 금번 제12차 모의훈련은 위기예방 목적(Precautionary Line)의 인출 요청에 대한 가상의 의사결정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83) 부총재를 반장으로 하여 통화정책·국제담당 부총재보 및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참고 II-1.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방향 수립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 2030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금융안정은 물론 장기 성장기조와 물가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행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2021년 4월 금융안정국 담당 부총재보가 주관하고 금융안정국 등 행내 10개 부서가 참여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유관부서간 협력 TF」를 구성하여 전행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를 집약하여 한국은행은 2021년 10월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⁸⁴⁾」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경제주체의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 인식 제고 및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 강화를 대응방향의 목표로 설정하고, 대응전략으로는 조사·연구, 정책수단, 조직 및 내부 경영,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조사·연구 부문에서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금융안정, 통화정책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평가를 본격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정보 수집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국내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통계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책수단 부문에서는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 대출

및 지급결제제도, 공개시장운영 등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 증권 대상범위에 녹색채권⁸⁵⁾을 추가하는 방안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외화자산 운용에서도 현재 외화자산 중 일부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ESG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향후 기후변화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관련 조사연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모니터링 및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전담하는 한편, 기후변화 관련 정보 및 데이터 축적, 인력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은행에 적용할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실행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도 국제협의체에 대한 참여 확대를 통해 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성과 및 정책 대응방안을 대외에 공개하여 경제주체들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나가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표 II - 9.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방향

미션	금융안정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 지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주체의 기후변화 리스크 인식 제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 강화 	
대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조사·연구 기후변화 관련 조사연구 강화 공동연구, 세미나 확대 기후관련 통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금융 활성화 대출제도 지급결제제도 공개시장운영 외화자산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및 내부 경영 기후변화 대응 전담조직 신설 자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연구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협의체 참여 홈페이지에 기후변화 색션 신설

자료: 한국은행

84) 보고서

85) 발행자금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천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관리 등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을 말한다.

QR BOX



QR 1

금융안정보고서
(2021년 6월)



QR 2

금융안정보고서
(2021년 12월)



QR 3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